

탄탄한 지역경제 기반 구축에 집중

송 지사, 상용차부품 주행사험장 방문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방안 등 논의...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 주시"

군산시 옥구읍에 들어설 상용차부품 주행사험장은 507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개발차종의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제동안전 시험 및 잦은 노면 제동력 평가, 내구성 평가 등을 위한 8개 시험로와 엔지니어링센터 등이 함께 구축된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주행사험장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2015년 3월에 착공해 현재 공정을 74%로 오는 10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를 중심으로 국내 상용차 생산량의 94%를 점유하고 있는 강점을 살린 자동차산업의 체질개선 핵심사업으로 전기상용차 자율(군집)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과 함께 시험 실증 기반구축, 데이터센터, CO-LAB센터 구축을 위한 2019년 사업비 600억원을 확보해 최근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인 전기자동차와 ICT 융합기술이 결합한 자율(군집)자동차로 전환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북의 농기계산업과 연계한 '농·건설기계 거점클러스터 조성'과 새만금이라는 지형적 잇점을 살려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플랫폼' 및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전라북도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꾀할 계획이며, 전북의 산업구조 개편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비전과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3일 착수 보고회를 가진 바 있다.

송하진 지사는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주시하고 있으며 자



송하진 도지사는 14일 '미래형 상용차 글로벌 전진기지' 선도사업으로 진행중인 군산 옥구 상용차부품 주행사험장(2015년 착공 507억 투입, 오는 10월 준공)을 방문하여 전북의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동차산업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체질을 개선하고, 농·건설·기계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도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자동차부품업계를 위한 단기적인 일감 확보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관련 지자체와 지원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전북도는 상용차부품 주행사험장이

완공되면 부품업체의 비용 절감과 함께 자동차 기업의 집적화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0월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는 이날 또 지역산업구조 다변화와 신산업 육성을으로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예정지도 직접 찾아 산단 개발상황을 면밀히 살펴봤다.

송 지사는 "최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현대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장기임대용지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관계관들에게 당부했다.

더불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건의사업에 포함되었지만 현재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아 향후 정치권과 긴밀하게 공조해 기재부 예산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진성기자

국제안전도시 공인 확정

전주시, ISCCC로부터

최종 승인 통보받아

도내 지자체 중 최초

올 하반기 중 선포식

전주시가 전북지역 최초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의미하는 국제안전도시로 인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이 행복한 환경 속에서 각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인정 받게 된 것은 물론,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도시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8일자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ISCCC)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공식 승인 통보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국제안전도시란 '모든 종류의 사고, 폭력, 자살, 재해 등 위생요인으로부터 신체적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하며, 전주시의 국제안전도시 공인은 국내 18번째, 전북지역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이다. 인증기간은 5년이다.

시는 ISCCC의 국제안전도시 공인 통보에 따라 국제안전도시 전주를 대내·외에 선포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세워 나가기 위한 공인선포식을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전주시 국제안전도시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분과위원회를 재정비한 후, 국제안전도시 공인 7대 기준에 적합한 국제안전도시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제안전도시 공인은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가 요구하는 공인기준 적합 프로그램 수행성과에 대해 현

정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1차 현지 예비심사에 이어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데일 헨슨(Dale Hanson)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최종 현지심사 평가에서 심사단으로부터 '국제안전도시 사업이 공인기준에 모두 적합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거버넌스 구축과 참여도가 매우 우수하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전주 만들기'를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지난 2015년 4월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안전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안전도시 시민 네트워크인 안전도시협의회·실무분과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는 등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준비해 왔다.

뿐만 아니라,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조사 연구용역 결과물인 손상 통계자료를 토대로 경찰서와 소방서, 교육청 등 안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실무자가 참여하는 △낙상예방 △낙상예방 △교통안전 △방범폭력 예방 △학교어린이안전 △재해재난 예방 등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 총 100여개의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자살사망률과 5대 범죄 발생률, 교통사고가 각각 감소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 공인신청 서류심사와 현지심사에서 심사단으로부터 안전도시를 열망하는 전주시의 전략과 관심도, 사업의 참여 등 전 분야의 성과를 높게 평가 받았다.

박순중 시장 권한대행은 이"오는 7월 이후에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와 공인협정 및 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향후에도 시민들과 함께 안전도시 사업의 발굴과 보완, 발전 등을 위한 모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전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기동취재반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서문선성, 이하 진흥원)이 스마트콘텐츠

기업의 홍보 및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소비자중심 B2C 마케팅지원에 나섰다.

진흥원은 ICT융합 기술 기반의 지역 특화형 스마트콘텐츠 발굴과 감소기업 육성을 위해 도내 콘텐츠 관련 기업 대상으로 '스마트콘텐츠 B2C 마케팅 지원' 참여기업 5개사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23일까지 스마트콘텐츠 B2C 참여기업 모집

세부 사업은 홍보동영상 제작지원과 바이럴 마케팅 지원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홍보동영상 제작지원은 홍보 전략 수립과 홍보영상 제작 등에 3개사를 선정, 기업당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정보를 제공해 구매유구를 자극시키는 바이럴 마케팅 지원의 경우, 기업별 맞춤형 홍보지원 등에 2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진흥원은 B2C 마케팅 외에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외 홍보 마케팅 전시 지원 참여기업 2개사(기

업당 최대 250만원 지원)를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한국 Co-Working 공간과 VR 장비·홀로렌즈 등 보유 장비와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www.jca.or.kr)에서 지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방문접수하거나 메일(hj4u@jca.or.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063-281-4111)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기동취재반

스승의 날 도내 165개 학교 휴업

스승의 날(5월15일) 전북지역에서는 총 165개 학교가 휴업한다.

14일 전북도교육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스승의 날 도내에서 재량 휴업하는 학교는 전체 766개교 가운데 165개교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110

개교로 가장 많고 중학교 38개교, 고등학교 17개교 등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재량휴업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각 학교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지역 전체 학교 수는 초등학교 424개교, 중학교 209개교, 고등학교 133개교 등이다. /기동취재반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